

ODA 리포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지 26
발행인 김종덕
담당 전혜은, 허재영, 김주형, 한다정, 이민정, 임해주,
김양희, 차보민, 이보람
감수 한덕훈
전화번호 051-797-4904 / 051-797-4415
E-mail hjy1@kmi.re.kr / odacenter@kmi.re.kr
발간년월 2024년 9월

CONTENTS

- ① 국제개발협력 동향 | ② SDGs 관련 국제 동향 | ③ 전문가 칼럼 | ④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 ⑤ 주요 행사



1 국제개발협력 동향

FAO

FAO,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한 지침 채택¹⁾

- 2024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제36차 FAO 수산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 COFI) 회의에서 소규모 수산업을 중심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식량안보를 위한 세계 어업 및 양식업의 역할, 기후변화가 어업 및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 해양플라스틱 오염 등이 논의됐다.
- FAO 수산위원회(COFI) 수산관리 소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수산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와 기회를 확인하여 식량안보와 영양의 필수요소인 수산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 이번 제36차 회의에서 FAO 수산위원회(COFI)는 지속가능한 양식업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Sustainable Aquaculture, GSA)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기아와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양식업의 중요한 역할을 강화하고 환경, 생물 다양성, 생태계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수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 이번 지속가능한 양식업에 대한 지침(GSA)은 양식업 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확장 강화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포괄적이고 적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 FAO 양식 책임자 호세 아길라르 만하레스(José Aguilar-Manjarrez)는 "이러한 지침을 채택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FAO 수석 양식 책임자(Matthias Halwart)는 "이 지침은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강령 제9조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에 따라 자국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개발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초안이 완성됐다"라고 언급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1) FAO 보도자료, <https://onu-rome.delegfrance.org/FAO-36th-session-of-the-Committee-on-Fisheries> (접속일: 2024.09.20.)

Germany

독일, 베트남 ODA 협정 체결²⁾

- 독일과 베트남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년간 베트남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독일은 베트남의 주요 ODA 공여국 중 하나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에 지원한 ODA 차관은 20억여 달러에 달한다.
- 독일의 베트남과의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2021년에 베트남에 1억 5,211만 유로의 개발 및 기술협력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 독일은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발정책의 주요 목표로 정의해왔으며 지난 30년간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원조를 강조했다. 독일은 중점 협력분야 중 하나로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를 정하여 환경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이번 국제기후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ICI)³⁾ 틀 안에서 베트남에 총 2,540만 유로 규모의 7개 양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기후 관련 정책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현재 독일의 환경안전부(BMUV)는 베트남의 해양 폐기물 퇴치에 관한 1,100만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독일로부터 3개의 지역 프로젝트와 2개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총 약 6,4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 전반적으로 독일 정부는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베트남과 독일이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다차원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2) 베트남 보도자료, <https://en.vietnamplus.vn/germany-signs-agreement-on-oda-for-vietnam-in-2024-2025-period-post271025.vnp>(접속일: 2024.09.25.)

3) 독일 환경부 주도 아래 국제기후이니셔티브(ICI)를 추진하고있으며 ICI는 개도국 및 신흥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목적은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데 있다.

OECD

OECD, 2023년 ODA 지원 총액은 2,23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⁴⁾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따르면 2023년 ODA 지원 총액은 2,237억달러로 5년 연속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공여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반면, ODA/GNI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37%를 유지하면서 달성목표치인 0.7%를 밑돌았다.
- 2023년에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공여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ODA가 2023년에 9% 증가하여 200억 달러에 이르렀고, 해외원조액이 역대 최고치인 2,237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DAC 공여국들의 ODA/GNI 총액은 여전히 UN의 0.7%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DAC 공여국의 총 국민총소득(GNI)의 0.37%로 2년 연속 ODA 총액은 여전히 GNI 대비 ODA 0.7%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DAC 회원국 중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이 2023년에 UN ODA/GNI 목표인 0.7%를 초과했다. 규모 면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였다.
- 한편 '23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전년 대비 3.2억불(11.4%) 증가한 31.3억불로 나타났다.
- OECD DAC 의장 카르스텐 슈타우어(Carsten Staur)는 ODA 지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고 기쁘며, 앞으로 공여국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 특히 최빈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4) OECD 보도자료, <https://www.oecd.org/en/about/news/press-releases/2024/04/international-aid-rises-in-2023-with-increased-support-to-ukraine-and-humanitarian-needs.html> (접속일: 2024.09.24.)

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 베트남 슈퍼태풍 피해 아동에 5만 달러 긴급 지원⁵⁾

- 세이브더칠드런은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 피해 아동을 위해 5만 달러를 긴급 지원한다. 또한, 생계비와 생필품, 교육 등을 피해 지역 아동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30년 만의 최악의 태풍 '야기'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약 190,000채의 주택이 침수, 손상 또는 파괴됐으며 최소 32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전체적으로 약 160만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 베트남 적십자사 부회장겸 사무총장 응웬하이안(Nguyen Hai Anh)은 "피해를 입은 지방에는 약 1,9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건강, 복지, 그리고 슈퍼 태풍 야기의 영향과 결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와 같이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건강, 복지, 그리고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세이브더칠드런 베트남 사무소장은 "태풍 야기가 마을을 휩쓸면서 모든 것이 진흙과 잔해로 뒤덮였다"면서 "아이들은 집, 학교,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다. 베트남 북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산사태와 홍수로 고립돼 있고, 실종자도 여전히 많아 실제 피해 수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베트남의 가장 취약하고 외딴 지역의 아동과 가족은 긴급 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가능한 한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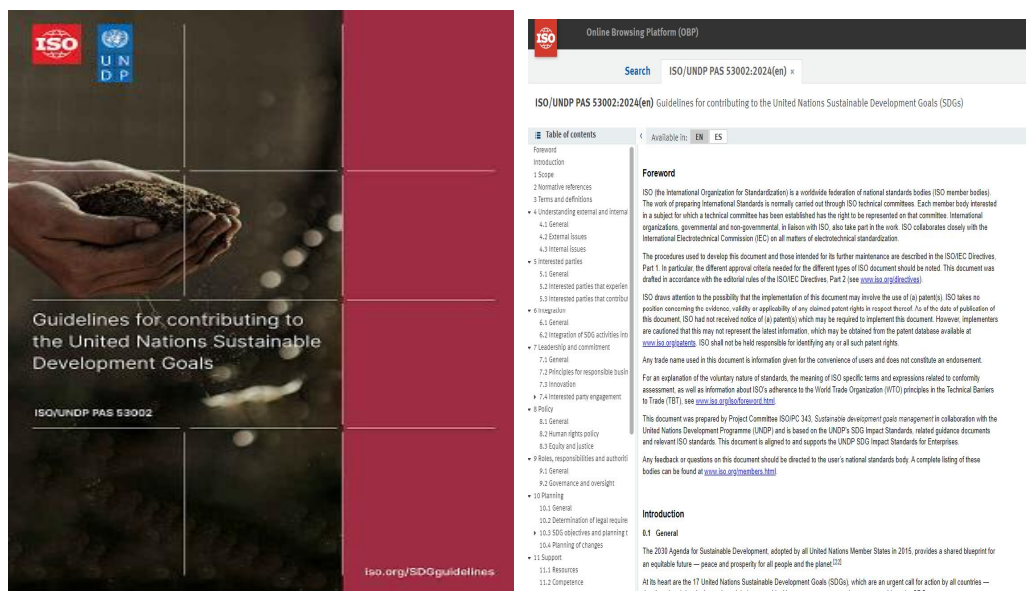
5) 세이브더칠드런 보도자료, <https://www.savethechildren.net/news/vietnam-back-school-challenges-ahead-flood-hit-areas-struggle-recover> (접속일: 2024.09.21.)

2 SDGs 관련 국제 동향

ISO

국제표준화기구(ISO), SDGs 가속화를 위한 첫 국제 가이드라인 발표¹⁾²⁾

- **(배경)** 지난 2024년 9월 9일부터 13일 5일간 2024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됐으며 올해 주제는 ‘글로벌 협력, 지속가능한 개발 및 국제 표준화의 포용성’이다.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와 함께 기업 중심의 세계 표준 포럼 출범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남은 시간이 6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의 SDGs 기여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ISO/UNDP 가이드라인(좌: 표지, 우: 목차 및 내용 등)

1) UNDP 뉴스 <https://www.undp.org/press-releases/groundbreaking-international-guidelines-empower-businesses-accelerate-sdg-achievement> (접속일: 2024.09.23.)
 2) ISO 뉴스 <https://www.iso.org/annualmeeting/2024/live/day1> (접속일: 2024.09.24.)

- **(주요 내용)** ISO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는 국제사회가 SDGs에 기여하기 위한 ISO/UNDP 가이드라인을 발행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가 SDGs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SDGs 관련 기업의 목표 설정) 기업의 경영목표가 SDGs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 * 예를 들면, 기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한 평균 물 사용량과 비교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의 물 사용량을 50% 감소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지표선정 및 데이터 수집) 기업에 맞는 SDGs 관련 영향 평가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기업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지표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투입물, 활동, 산출물, 결과, 영향 등 다양한 종류의 지표 선정이 필요하다.
 - (SDGs 달성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 2030년까지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 특히 민간 부문과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직들이 SDGs 기여 방안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표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모든 조직이 SDGs를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그 진척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규모의 조직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 조직 운영에 통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시사점)** 이번 가이드라인은 모든 조직이 SDGs를 핵심 전략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많은 조직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번 발표는 ISO와 UNDP가 2023년 9월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주요 성과로, SDGs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SO와 UNDP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속가능성 표준을 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SDGs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전문가 칼럼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해양수산 ODA 추진 제언

해양수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글로벌 식량 안보와 해양 환경 보호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기후변화, 해양 자원의 고갈, 그리고 불법 수산물 어획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므로, 해양수산 ODA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서 해양수산 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17억 원 규모였던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ODA는 2024년에는 43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 글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수산 ODA의 성공적 추진과 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을 다루고자 한다.

● 부처 ODA 목적의 명확한 설정

해양수산 ODA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시행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외교부-KOICA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ODA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양수산 ODA를 시행한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 역동적 경제, 균형 발전 등 부처 고유의 비전과 목적에 맞춘 ODA를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생 안정'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어족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원국으로부터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ODA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역동 경제' 영역에서는 해양 시스템 및 관련 기자재 수출, 항만 운영 관리 사업 등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ODA가 추진될 수 있다.

● 시행(Execution)과 수행(Implementation)의 차이

해양수산 ODA의 추진 영역이 정의되면 핵심 협력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ODA를 시행할 수 있는 현장 사무소 개설을 고려해야 한다.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시행과 수행으로 구분되는데, 시행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수원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며, 사업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수행은 시공, 기자재 공급, 역량 강화, 컨설팅 등의 사업 요소를 수원국 현지에서 구현하고, 산출물을 제공하는 민간 부문(일명 PMC)의 역할이다. 부처의 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계획된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여국 시행기관의 감독 관리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협력 사업은 수원국, 공여국 시행기관, 그리고 수행기관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 갈등 해결의 반복이다.

- 세부 영역의 가치사슬 구축과 프로그래밍

해양수산 ODA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일본은 수원국의 수산자원 관리 역량 강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 해수면 상승에 적응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예를 들어,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어족 자원 관리 기법을 전수하는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조선업 진흥, 지속가능한 수산 유통 가치사슬 구축, 수산양식 투자 지원 등의 영역을 고려할 만 하다. 세부 영역이 정의되면, 적절한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영역을 정의함으로써 'K-해양수산 ODA'의 브랜딩도 가능해질 것이다.

- 지역 간 다국가 협력의 필요성

해양수산 ODA는 단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다자간 또는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해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여러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불법 어획 문제 해결, 해양 오염 방지,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ODA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

수원국의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 자금과 민간 자본의 연계를 도모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개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을 혼합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예를 들어, 수산양식 프로젝트에서 공공 ODA와 민간 자본을 결합하면 개도국에서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수원국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의 기업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접근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탈출(EXIT)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원이 끝난 후 수원국이 스스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자재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인력의 이직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성과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ODA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추가적인 연계 사업을 개발하는 등 장기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수산 ODA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도구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지속적인 사후 관리, 민간 투자의 연계, 다자간 협력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곽재성 교수

〈주요 이력〉

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현) 국제개발협력학회 부회장 (차기회장)

전)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4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태평양 도서국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대상 국제오퍼버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 사업 목적
 -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의 정책관계자와 오퍼버를 대상으로 오퍼버 업무와 해상 안전 역량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IUU어업 방지 및 대상국 원양업계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 개요
 - 태도국 정책관계자 대상 한국 오퍼버 프로그램 운영·관리시스템 전수, RFMOs와 어법, 해양보호종 관리, IUU어업 방지, 보고서 작성 실무교육 등 국제 오퍼버 업무 이해, 역량강화 등
 - 사업기간: 2024년(1년간)
 - 사업비: 936백만원(한국수산자원공단 540백만원, (주)리프 396백만원)
- 사업 대상
 -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4개국 / 투발루, 사모아, 통가, 키리바시) 오퍼버, 정책관계자 등

* 여성 연수생은 괄호로 표기

국 가	정책관계자	오퍼버	소계
키리바시	7(3)	8(1)	15(4)
사 모 아	7(4)	5(2)	12(6)
통 가	7(4)	7(1)	14(5)
투 발 루	7(0)	7(1)	14(1)
합 계	28(11)	27(4)	55(16)

- 추진현황(2024년)
 - 5월: 사업 착수
 - 5 ~ 7월: 태도국(4개국) 정책관계자 및 오퍼버 연수생 명단 확보(총 55명)
 - 7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연구 기관 모집 완료
 - 8월: 태도국(4개국) 대상 공식 초청장·항공권 발송, 국별보고서 작성 요청
 - 8 ~ 9월: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대상 국제오퍼버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관련사진



2024년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대상 국제옵서버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책자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대상 국제옵서버 역량강화 연수 현장사진

● 기대효과

- 태도국의 국제옵서버 역량강화와 지역수산기구(RFMOs) 인증 지원으로 국익창출 및 해양과 해양자원 보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
-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이 활동하는 태도국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한 협력관계 확대·강화 기여

한국수산자원공단 장준철 과장, 이수경 대리
zenithoov@fira.or.kr, sue@fira.or.kr

다국가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초청연수 사업

● 사업 목적

- 개발도상국 해양분야 주도계층의 해양정책 개발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해양법 역량강화
- 개발도상국의 해양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지역적 논의의 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규범 및 대처방안 교육

● 사업 개요

- 해양법 및 해양 이슈에 대한 2주간 연수 프로그램
- 유엔해양법협약, 협약의 적용, 분쟁 해결 등 해양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온라인 학습시스템 운영
-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졸업 연수생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2024년(2014년 1회로 시작하여 2024년 11회 여수아카데미 개최 예정)
- 사업비: 3.5억 원

● 사업 대상

-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수원국의 해양 관련 부처 공무원, 연구자, 대학 교수 등

The collage consists of three main parts:

- Left Panel:** A brochure titled "YEOSU ACADEMY OF THE LAW OF THE SEA, 2023". It features a scenic view of a coastline and includes the text: "BUILDING CAPACITY FOR OCEAN AFFAIRS IN DEVELOPING STATES", "YEOSU ACADEMY OF THE LAW OF THE SEA, 2023", "TENTH SESSION", "23 OCTOBER - 3 NOVEMBER 2023", "YEosu, REPUBLIC OF KOREA", and "APPLICATION: 16 JULY - 28 AUGUST 2023".
- Middle Panel:** A text-heavy page titled "2023 YEOSU ACADEMY of the Law of the Sea". It describes the academy as an initiative of the EAPC 2012 Yeosu Korea and mentions the "Yeosu Declaration" and "The Yeosu Project".
- Right Panel:** A smaller flyer with a photo of a group of people in a meeting. It contains sections for "Application", "Program", "Lecturers", "Secretary", "Events & Field Trips", and "Travel".

여수 해양법아카데미 홍보 브로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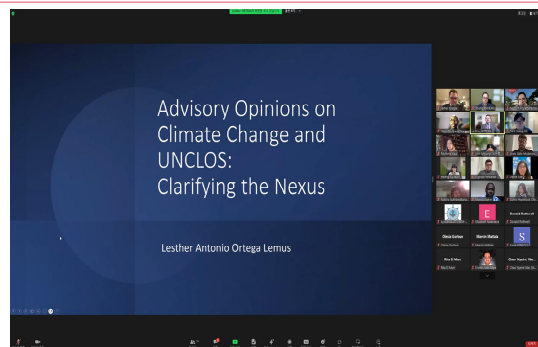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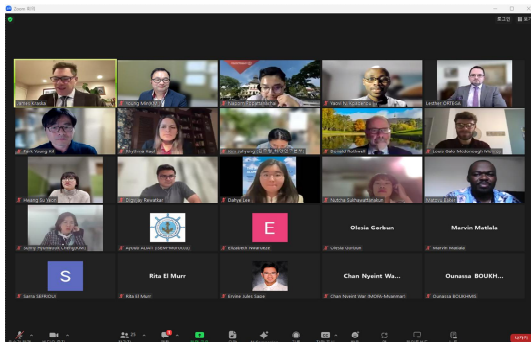
● 추진현황(2023년 사업)

- '23년 6월: 사업 착수
- '23년 7월~8월: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초청연수 연수생 지원서 접수
- '23년 9월: 연수생 선발 및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초청연수 프로그램 확정(강사 포함)
- '23년 10월~11월: 초청연수 실시(장소: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강의) 및 여수 일대(필드트립 등))
- '24년 1월: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졸업생 세미나 발표자 및 토론자 지원서 접수 및 선발
- '24년 2월: 졸업생 세미나 실시(온라인) 및 우수 발표자 선정

● 관련 사진



2023년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초청연수



2023년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졸업생 세미나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024년 사업)

- ‘24년 6월: 사업 착수 및 여수해양법초청연수 홍보
- ‘24년 7월~8월: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초청연수 연수생 지원서 접수 및 연수생 선발
- ‘24년 9월: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초청연수 프로그램 및 강사 확정
- ‘24년 10월 21일~11월 1일: 초청연수 실시(장소: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강의) 및 여수 일대(필드트립 등))
- ‘24년 11월: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졸업생 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개발도상국 해양 관련 공무원, 학자, 관련 분야 종사자의 해양법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모
- 해양오염, 어업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규범들과 관련하여 해양에서의 주권 및 권리의 한계를 교육하여 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해양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와 이슈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연수생 국가와 관련된 국내·외 해양 자원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안정적인 국익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
- 관할권 중첩, 해양경계 획정 등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 및 해석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 규칙기반 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 해양 기후변화, 해양안보 등과 관련한 최근 해양 이슈를 유엔해양법협약, 국제관습법 등을 기반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최근 글로벌 해양 이슈에 대한 개발도상국 대응 역량을 강화
- 해양법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저명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해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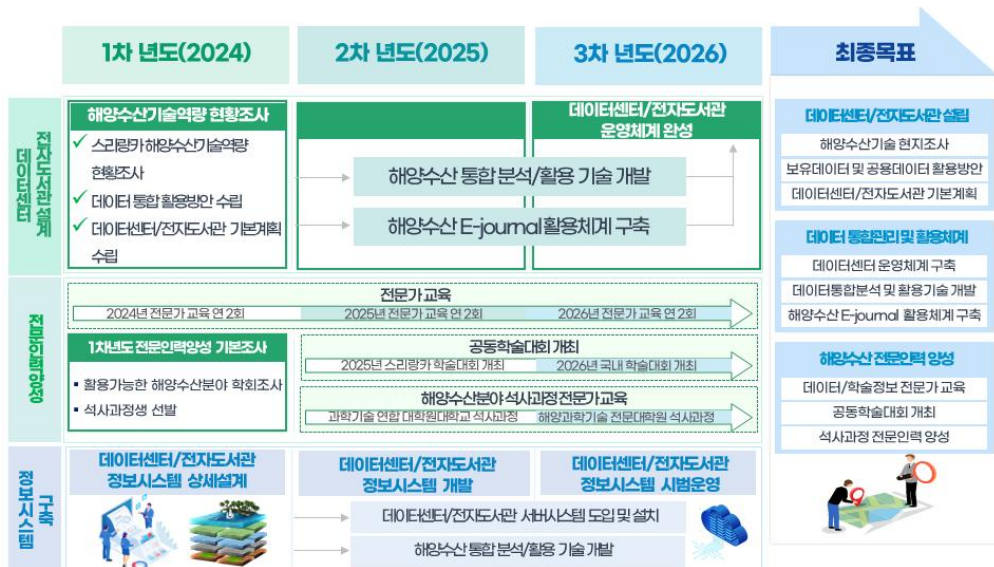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영길 연구위원 / 민영훈 전문연구원
 yk405@kmi.re.kr / yhmin@kmi.re.kr

스리랑카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설립 사업

- 사업 목적
 - 스리랑카 데이터 관리체계 및 디지털정보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선진국의 정보격차 감소 해양과학 연구능력 향상
- 사업 개요
 -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설립, 디지털 관리·업데이트 등 분야 정보 전문가 양성
 - 사업기간: 2024~2026년
 - 사업비: 60억 원
- 사업 대상
 - 스리랑카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NARA: National Aquatic Resources Research & Development Agency)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설립 추진 로드맵]

● 추진현황(2024년)

- 6월: 사업 착수
- 7월: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 8월: 사업 Kick-off 미팅 / 현지조사를 통한 해양수산역량 파악 및 협력방안 논의
- 9월: 스리랑카 해양관련기관 현황보고서 작성

● 관련사진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설립 사업 현지 Kick-off 미팅



스리랑카 해양 연구기관 방문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향후계획(2022년)

- 10월: 1차 현지 전문교육(Introduction to Ocean Data Management) 수행
2차 현지 전문교육(Database and GIS for Ocean Data) 수행
- 11~12월: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기본계획 설계

- 기대효과

- (국제협력강화)해양수산과학 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인도양 권역 해양자원 공동개발 및 인도양 해양 관측데이터공유 등 지속적인 협력 추진 기반 조성
- (기술역량강화)선진국과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ICT 인프라 구축으로, 해양수산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해양산업의 체계적 발전에 기여
- (경제적성과)한국의 선진 해양과학기술과 IT 기술 등을 기반으로 관련 기업과 인력의 스리랑카 진출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과학기술 위상재고) IT 인프라 및 전문인력 프로그램 등 한국의 해양과학기술역량 전수에 따른 국제적 국가위상 재고
- (외교적 성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위상강화 및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기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태훈 연구원
thkim00@kiost.ac.kr

5 주요 행사



향후 계획

WMU-MOF-KMI CAPFISH 글로벌 여름 아카데미 개최

- 기간 및 장소
 - 24년 11월 11일(월) ~ 22일 (금) / 피지 수바
- 참여기관 및 참석자(잠정)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WMU),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석자) 태평양도서국 수산관련 공무원 및 국가기관 소속 전문가 25명, 불법어업 관련 국제기구 출신 전문가, 학계 및 관련 업계 전문가 30여 명 등 총 80여 명 참석 예정
 - (참여기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FFA), 태평양공동체(SPC),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글로벌 피싱위atch(GFW), 남태평양대학교(USP), 솔로몬국립대학교, US 연안경비대,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조업감시센터, 해양경찰청 등
 - (목적) 연안 개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정례적 교육 훈련 및 교재 개발을 통해 글로벌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여
- 주요내용
 - 지역별 중점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5개년 여름학교 운영을 통해 ①IUU 어업 근절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모 ②지역 공동의 효과적 IUU 어업 대응 방안 마련 지원

가나 수산식품 산업혁신: 여성어업인 역량강화 및 정책 선진화를 위한 초청연수

● 기간 및 장소

- 2024년 10월 21(월) ~ 25(금) / 대한민국 부산

●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 및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석자)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수산위원회(Fisheries Commission) 공무원 및 가나여성어업인협회 관계자 5인 등 총 10여 명

* 본 연수사업은 가나 여성어업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사업(해수부 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

● 주요내용

- (목적) 우리나라의 소규모 어촌 및 대규모 수산가공클러스터 등 한국의 수산식품 가공·유통 현장을 방문하여 가나 수산업 발전 모델 및 마스터 플랜 등의 방향 설정 안내
- (방문기관)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특화마을(이동마을), 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 부산 수산가공선진화 단지, 수산물종합연구센터, 자갈치 시장, 조업감시센터 등*

* 변경 발생 가능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양희 연구원
yanghee.kim@kmi.re.kr



기추진 행사

2024년 제1차 OCEANAID 워크숍

- 일정
 - 8월 29일(목)/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 해수부 및 소속·유관기관·국제기구 ODA 사업담당자 등 40여 명
 - (참여 기관)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국제해사기구(IM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선급,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공단, 등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개발협력센터
- 주요내용
 - 기관별 ODA 사업 발표 및 경험 공유
 - (국제 승선 실습 프로그램) IMO 기술협력위원회에서 본사업 결과를 의제 문서로 제출했으며, 많은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해기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인니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과학교육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사업 /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와 역량강화 사업) 두 사업은 한국 해양수산 ODA의 성공 사례로 확인됐으며 향후 ODA 정책과 사업 추진 시 타국과의 협력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 가능
 - (조지아-해양조사 인프라 구축) 해양 관측 분야 기술 전수를 진행하였고 해양조사 장비를 총 사업기간('20~'24)동안 지원하여 해양관측 분야 기반 마련 및 기술 강화
 - (IMO-선박(어선) 폐기물 저감 사업)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국제적 협력 강화 등 한국의 해양 환경 관리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 특히, 개도국의 해양 환경 보호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
 - (FAO-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개발 지원 사업) 데이터 네트워킹, 매핑 및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MOU 체결 등을 사업 성과로 도출

해양수산 ODA 리포트는

해양수산부 ODA 전문기관인 KM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국내외 ODA 정책, SDGs, 국제기구, 해외정부의 동향 및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진

전해은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허재영 국제개발협력 전문연구원

김주형 국제개발협력 전문연구원

한다정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이민정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임해주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김양희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차보민 국제개발협력 전문사무원

이보람 국제개발협력 사무원

감리

한덕훈 대외협력사업부장

해양수산

ODA 리포트

발행일 2024년 9월 30일

편집·발행일 김중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용당캠퍼스 한미서관 12층
KMI 한미르 해양수산협력센터
TEL) 051-797-4904 FAX) 051-797-4415

편집디자인 애드원플러스 TEL) 070-4390-38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